

陸游의 蜀中詞에 나타난 心態 표현 특징

金 恩 景*

〈目 次〉

- | | |
|-------------------------------|--|
| I. 들어가며 | IV. 景物 묘사보다 心態 묘사 중심으
로 표현 - 蜀中 游覽詞 |
| II. 蜀中 행로와 詞作 | |
| III. 대비를 통한 心態 표현 -
蜀中 憂國詞 | V. 복잡한 心態 표현 - 蜀中 宦游詞 |
| | VI. 끝맺으며 |

I. 들어가며

南宋의 대표 애국 詩人이자 詞人인 陸游(1125~1210)는 紹興 28년(1158) 福州(지금의 福建省 福州) 寧德縣主簿를 시작으로, 淳熙 16년(1189) 11월 과직되어 고향 山陰으로 돌아가기전까지 근 30여년의 관직생활을 지냈다. 이 기간 동안 육유는 그의 고향 山陰을 중심으로 가깝게는 浙江省과 江蘇省, 멀게는 福建省과 四川省 등 여러 지역을 두루 돌아다녔다. 그의 길고 멀었던 인생행로는 자연스럽게 작품에 반영되었으며, 그가 보고 겪었던 산수명승 및 생활풍속 등은 작품의 재제가 되어, 창작의도와 眞情이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任地에 따라 자연히 작품의 내용과 풍격이 달라졌고 그의 창작 활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의 긴 인생행로에서 특히 이와 같은 변화를 야기한 곳은 어디일까?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당연히 옥유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적은 시 〈示兒〉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의 애국충정과 관련된 지역일 것이다. 즉 乾道 6년(1170)부터 淳熙 5년(1178)까지 생활한 巴蜀 지역이다.

옥유는 乾道 6년(1170) 10월에 夔州(지금의 四川省 奉節縣)에 도착하여 夔州通判의 직무를 맡았다. 乾道 8년(1172)에는 南鄭(지금의 陝西省 鄭縣)에서 幕府가 해산될 때까지 근 8개월간 四川宣撫使司幹辦公事兼檢法官을 지냈으며, 다시 成都(지금의 四川省 成都市)로 돌아와 成都府安撫司參議官에 임명되었다. 다음해 잠시 蜀州(지금의 四川省 崇慶縣)通判을 지내다가, 그해 여름 攝知嘉州事로 전임되어 淳熙 元年(1174) 봄까지 嘉州(지금의 四川省 樂山市)에 머물렀다. 그해 봄에는 蜀州通判으로, 11월에는 攝知榮州(지금의 四川省 榮縣)事로 부임되었고, 12월에는 成都府路安撫司參議官兼四川制置使司參議官을 맡아 다시 成都로 가게 된다. 淳熙 5년(1178) 봄, 근 9년의 시간을 보낸 뒤 옥유는 孝宗의 조서를 받들어 成都를 떠나 臨安으로 돌아간다.

옥유의 蜀地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되어, 촉지에서 돌아온 후에도 거듭 그리워하는 대상이 되었다. 또한 蜀地 생활의 회상을 통해 국토수복과 이민족의 소탕을 이루지 못한 비분, 강개, 슬픔의 감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趙翼은 《甌北詩話》에서 “放翁 詩의 넓고 자유분방함은 군대를 쫓아 巴蜀으로 가면서 경계가 또 한 번 변한 것이다.”¹⁾라고 하여 그의 詩風 변화의 경계선을 入蜀 전후로 나누었다. 옥유는 촉지에서 문학적 풍격의 변화가 일어날 만큼 다양한 경험과 깊은 사고를 통해 심리적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심태는 그의 詞에도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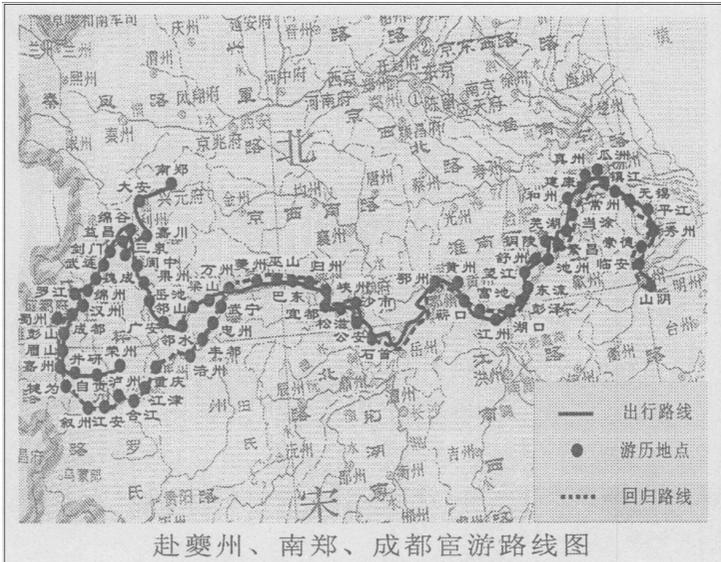
그러므로 본고는 옥유의 蜀中詞에 나타난 심태와 그 표현 특징을 분석하고, 나아가 蜀中詞의 특징과 蜀中 생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放翁詩之宏肆，自從戎巴蜀，而境界又一變。”

[清]趙翼，霍松林，胡主佑 校點，《甌北詩話》卷六(陸放翁詩)，人民文學出版社，1963，79쪽.

II. 蜀中 행로와 詞作

육유는 乾道 6년(1170) 윤 5월, 고향 山陰에서 출발하여 근 5개월의 기간을 거쳐 蜀地인 夔州에 도착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일기형식의 〈入蜀記〉를 적어 긴 여정을 기록하였다. 아래 지도를²⁾ 참고하여 육유의 入蜀 경로와 東歸 경로를 자세히 볼 수 있으며, 육유의 巴蜀 出任이 실로 길고 험한 여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入蜀 후 총 여섯 지역(夔州, 南鄭, 成都, 嘉州, 蜀州, 榮州)에서 관직을 지냈고, 그의 蜀中詞는 대부분은 任地에서 지어졌다. 관직을 지낸 지역 외에, 夔州에서 南鄭으로 이동하면서 지나쳤던 果州(지금의 四川省 南充市), 益州(지금의 四川省 廣元市), 葭萌驛(益州의 서남쪽 嘉陵江 변에

2) 吳其付, 《陸游宦游生涯의 景觀變遷》, 四川師範大學, 2005년, 碩士, 11쪽.

있음)에서 각각 한 수를 지었고, 南鄭에서 成都로 돌아올 때 葭萌驛과 左綿(지금의 四川省 綿陽市)에서 각각 한 수를 지었다. 또 榮州에서 成都로 돌아오면서 應靈(지금의 四川省 榮縣 서쪽)을 지나다 사 한 수를 적었다. 즉 현재 전해지는 그의 사 145수 가운데 약 1/3에 해당하는 42수를 蜀地에서 적었다.

육유가 蜀地에서 填詞한 지역과 작품 및 편년은 아래 표와 같다.

지역명	편년	작 품 명
夔州	1170	〈滿江紅〉(疏蕊幽香), 〈感皇恩〉(春色到人間)
	1171	〈驀山溪〉(元戎十乘), 〈木蘭花〉(三年流落巴山道)
果州	1172	〈臨江仙〉(鳩雨催成新綠)
小益	1172	〈蝶戀花〉(陌上簫聲寒食近)
葭萌驛 ³⁾	1172	〈鷓鴣天〉(看盡巴山看蜀山)
南鄭	1172	〈望梅〉(壽非金石), 〈浣沙溪〉(浴罷華清第二湯)
		〈秋波媚〉(秋到邊城角聲哀)
葭萌驛 ⁴⁾	1172	〈清商怨〉(江頭日暮痛飲)
左綿	1172	〈齊天樂〉(角殘鐘晚關山路)
成都	1173	〈漢宮春〉(羽箭調弓), 〈夜遊宮〉(獨夜寒侵翠被)
		〈鷓鴣天〉(家住東吳近帝鄉)
嘉州	1173	〈烏夜啼〉(檐角楠陰轉日), 〈蝶戀花〉(水漲萍根風卷絮)
蜀州	1174	〈蘇武慢〉(淡靄空濛)
榮州	1174	〈木蘭花慢〉(閱邯鄲夢境), 〈好事近〉(羈雁未成歸)
		〈驀山溪〉(窮山孤壘)
應靈	1175	〈水龍吟〉(樽前花底尋春處), 〈齊天樂〉(客中隨處閑消悶),
		〈沁園春〉(粉破梅梢), 〈桃源憶故人〉(斜陽寂曆柴門閉)
應靈	1175	〈桃源憶故人〉(欄干幾曲高齋路)

3) 乾道 8年(1172) 3월, 육유가 南鄭에 부임하기 위해 夔州에서 출발하여 嘉陵江을 거슬러 북쪽으로 올라가다 葭萌驛을 지나감.

4) 乾道 8年(1172) 9월, 王炎的 막부가 해산되어, 陸游는 南鄭에서의 군생활을 마치고 成都로 돌아오는 도중 葭萌驛을 지나감.

成都	1175	〈漁家傲〉(東望山陰何處是), 〈南歌子〉(異縣相逢晚) 〈雙頭蓮〉(華鬢星星)
	1176	〈烏夜啼〉(我校丹臺玉宇)
	1174~ 1178	〈夜遊宮〉(雪曉清笳亂起), 〈好事近〉(客路苦思歸), 〈漢宮春〉 (浪迹人間), 〈柳梢青〉(錦里繁華)
	編年 未詳	〈朝中措〉(怕歌愁舞懶逢迎), 〈月上海棠〉(斜陽廢苑朱門閉), 〈桃源憶故人〉(城南載酒行歌路), 〈水龍吟〉(摩訶池上追游路)
忠州	1178	〈玉胡蝶〉(倦客平生行處)
蜀中作	編年 未詳	〈感皇恩〉(小閣倚秋空), 〈鵲橋仙〉(茅檐人靜), 〈鷓鴣天〉(南浦舟中兩玉人)

이 표는 《放翁詞編年箋注》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본고에서 참고한 《放翁詞編年箋注》와 《陸游詞新釋輯評》의 작품 편년을 검토한 결과 편년이 다른 작품은 총 144수 가운데 13수가 있었으며 아래 표와 같다.

	《放翁詞編年箋注》	《陸游詞新釋輯評》
〈鷓鴣天〉(懶向青門學種瓜)	乾道 2年(1166)	還鄉이후
〈鷓鴣天〉(家住蒼烟落照間)	乾道 2年(1166)	還鄉이후
〈采桑子〉(三山山下閑居士)	乾道 2年(1166)	還鄉이후
〈烏夜啼〉(園館青林翠樾)	東歸후	寫作年月待考之作
〈好事近〉(歲晚喜東歸)	東歸후	蜀中 宦游時期
〈豆葉黃〉(春風樓上柳腰肢)	東歸후	寫作年月待考之作
〈朝中措〉(簪髮難鼓餞流年)	不編年	還鄉이후
〈憶秦娥〉(玉花驄)	不編年	蜀中 宦游時期
〈沁園春〉(一別秦樓)	不編年	蜀中 宦游時期
〈安公子〉(風雨初經社)	不編年	蜀中 宦游時期
〈眞珠簾〉(山村水館參差路)	不編年	蜀中 宦游時期
〈一叢花〉(仙姝天上自無雙)	不編年	還鄉이후
〈醉落魄〉(江湖醉客)	不編年	還鄉이후

이 13수 가운데 《陸游詞新釋輯評》에서는 〈好事近〉(歲晚喜東歸), 〈憶秦娥〉(玉花驄), 〈沁園春〉(一別秦樓), 〈安公子〉(風雨初經社), 〈眞珠簾〉(山村水館參差路)이 四川에서 관직을 지낼 때 혹은 蜀中 宦游時期에 지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지 대략적인 시기와 장소만을 밝혀두고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放翁詞編年箋注》에서도 〈好事近〉(歲晚喜東歸)을 東歸후의 작품으로, 그 외 4수의 작품을 不編年으로 분류하고 다른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 5수를 제외하고, 위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蜀地에서 지어졌다고 밝힌 42수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이 42수의 편년은 대부분 일치한다. 즉, 42수 중 아래 표 6수의 편년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외의 다른 작품의 편년은 일치한다.

	《放翁詞編年箋注》	《陸游詞新釋輯評》
〈蝶戀花〉(水漾萍根風卷絮)	乾道 9年(1173)	乾道 9年(1173) 혹은 이로부터 오래되지 않아 지음
〈水龍吟〉(樽前花底尋春處)	淳熙 2年(1175)	淳熙 元年(1174)~ 淳熙 2年(1175) 사이
〈夜游宮〉(雪曉清笳亂起)	淳熙 元年(1174)~ 淳熙 4年(1177) 사이	乾道 9年(1173)~ 淳熙 4年(1177) 사이
〈感皇恩〉(小閣倚秋空)	촉지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지음	淳熙 4年(1177) 혹은 이로부터 오래되지 않아 지음.
〈漢宮春〉(浪迹人間)	淳熙 2年(1175)~	成都에서 지음
〈柳梢青〉(錦里繁華)	淳熙 5年(1178) 사이	

이상의 蜀地에서 지은 작품 내용을 살펴보면 절기에 대한 감회나 타향을 떠도는 나그네의 심정을 서술하기도 하고, 또 연회 자리에서 만난 기녀 혹은 여인을 등장시키기도 하였으며, 友人과의 이별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Ⅲ. 대비를 통한 心態 표현 - 蜀中 憂國詞

육유는 乾道 8년(1172) 초 四川 宣撫使인 王炎의 부름을 받아 夔州를 떠나 南鄭에 도착하여 군영 생활을 시작하였다. 비록 약 8개월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육유 일생에 있어 큰 의미를 차지한다. 南鄭은 당시 四川省과 陝西省의 중요한 교통요지로 西北邊疆에 위치하였으며, 이미 이민족에게 함락된 長安과도 가까운 지역이다. 이곳은 육유가 항상 가슴에 품고서 그 실현을 간절히 염원했던 壯志와 그의 호방한 기질을 펼칠 수 있는 현실적 무대였다. 실제로 육유가 남정의 高興亭에 올라 長安의 終南山을 바라보고 지은 <秋波媚>에서 자신의 애국의 정을 깊고 강력하게 나타내었다.

<秋波媚—七月十六日晚登高興亭望長安南山>

추파미 — 7월 16일 늦게 高興亭에 올라 長安의 南山을 바라보다.

秋到邊城角聲哀,	가을되어 변방 성 호각소리 슬프고
烽火照高臺.	봉화는 높은 누대를 비춘다.
悲歌擊筑,	슬픈 노래로 筑을 타고,
憑高酌酒,	높은 곳에 기대어 술을 뿌리니
此興悠哉!	이에 흥이 유유하여라!

多情誰似南山月,	정이 많기로는 누가 남산의 달만 하라
特地暮雲開.	특히 저녁 구름이 걷히면
灞橋煙柳,	안개 속 灞橋의 버드나무,
曲江池館,	못 둘러진 曲江의 객관에서
應待人來. ⁵⁾	당연히 사람 오길 기다린다.

가을바람이 부는 어느 날 밤, 육유는 높은 정자에 올라 군대의 호각소

5) [宋]陸游, 夏承燾, 吳熊和 箋注, 《放翁詞編年箋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33쪽.

리를 들으며 군중의 신호를 보내는 봉화를 바라본다. 이러한 변경에 있는 육유는 눈앞의 적지로 종군하여 보국하고자 하는 호방한 기세와 웅대한 뜻을 감출 수 없다. 작가의 결의가 전달이나 된 듯, 함락된 長安 또한 절실히 수복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작가는 종군하여 공훈을 세우고 업적을 쌓을 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에 차있다.

육유가 남정에서 전사한 3수의 작품 가운데 자신의 호방한 愛國之情을 표현한 작품은 이 한 수이며, 나머지 두 수는 宴席에서 지은 晚唐體 풍의 詞와, 현실에 대한 불만 즉 “時不我與”의 심정을 나타낸 詞이다. 그러나 후일 그가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남정에서 보낸 인생의 한 단락은 蜀地에서 혹은 東歸하여 고향 山陰에서 填詞한 사에서도⁶⁾ 제재로 사용되어 그의 憂國의 심태를 나타내었다.

蜀地에서 전사한 憂國詞에서 육유는 그의 심태를 어떻게 나타내었을까. 바로 “과거”와 “현재”, “꿈”과 “현실”을 대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육유는 乾道 8년(1172) 9월 南鄭에서 成都로 돌아와, <漢宮春>을 지었다.

<漢宮春—初自南鄭來成都作> 한궁춘 — 남정에서 성도에 와서 짓다.

羽箭雕弓,	새 깃 화살에 꽃무늬 활을 들고
憶呼鷹古壘,	古壘에서 매를 부르고
截虎平川.	광야에서 호랑이 잡던 일을 생각한다.
吹笳暮歸野帳,	피리를 불며 저녁 무렵 막사에 돌아오니
雪壓青氈.	눈이 내려 푸른 장막을 뒤덮었네.
淋漓醉墨,	취기에 쓴 글씨 힘이 넘쳐
看龍蛇、飛落蠻牋.	용과 뱀이 종이 위로 날아 떨어지는 듯하네.
人誤許、詩情將略,	내가 시인으로 장수로 뛰어나다 잘못 칭찬하였으니

6) 육유가 촉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후, 남정을 회상하며 지은 작품으로는 <訴衷情>(當年萬里覓封侯), <鵲橋仙>(華燈縱博), <謝池春>(壯歲從戎)이 있음. 이외에도 <風入松>(十年裘馬錦江濱)은 蜀中の 생활을 회상하며 지었고, <菩薩蠻>(小院蠶眠春欲老)은 成都의 해당화를 회상하며 지음.

一時才氣超然,	한 때 才氣가 뛰어났었지.
何事又作南來,	무슨 일로 또 남쪽으로 와서
看重陽藥市,	重陽節에 약재 시장
元夕燈山,	元夕에 燈山을 보게 되었는데.
花時萬人樂處,	꽃 피는 시절에 모든 사람들 즐거워하는 곳에서
敝帽垂鞭,	모자 비스듬히 쓰고 채찍 늘어뜨린 채 간다.
聞歌感舊,	노래 소리 들으며 옛날 생각하니
尚時時、流涕尊前.	때때로 술잔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君記取,	그대 기억하시라
封侯事在,	제후로 봉해지는 일을 하는데
功名不信由天. ⁷⁾	공명은 하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 시는 成都로 돌아온 후 南鄭의 군생활을 회상한 작품이다. 上片에서 南鄭에 있을 당시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매와 호랑이를 사냥하는 구체적인 사건을 적어 자신의 비범한 모습과 호방한 심태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종군의 즐거움과 작가의 흥분과 호쾌함을 느낄 수 있다. 下片에서는 성도에 온 후의 생활을 묘사하였는데, 上片에서 나타나는 작가의 심태와 대조를 이룬다. 성도로 돌아온 후 생활이 한가해진 육유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람을 즐기는 듯하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현실은 육유의 壯志와 거리가 멀다. 결국 술잔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는 가슴깊이 품고 있던 壯志를 蜀地로 들어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지만, 현실은 그의 뜻과 점점 멀어져 간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결국 작가의 침통한 심정을 자아내었다.

즉, 과거와 현재의 확연한 대비를 통해서 작가의 호방하면서도 침울한 심태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上片(과거)과 下片(현실)의 대비는 작가의 심태 표현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또 같은 시기 성도에서 지은 〈鷓鴣天〉을 보자.

7) 같은 책, 36쪽.

〈鷓鴣天—送葉夢錫〉 자고천 — 섭몽석을 보내며

家住東吳近帝鄉,	집이 東吳 땅이라 임금님 계시는 곳과 가깝고,
平生豪舉少年場.	평소 젊은이들 모이는 곳에서 호협한 행동했네.
十千沽酒青樓上,	만 냥의 술을 사 마시던 靑樓,
百萬呼盧錦瑟傍.	비단 거문고 옆에서 벌린 백만 냥의 노름판.
身易老,	몸은 쉽게 늙고,
恨難忘.	恨은 잊기 어려우니.
尊前贏得是淒涼.	술잔 앞에서 얻은 것은 쓸쓸함뿐이다.
君歸爲報京華舊,	그대 돌아가 서울의 옛 벗들에게 내 소식 전해주게,
一事無成兩鬢霜。8)	한 가지 이룬 일 없이 양 귀밑머리에 흰 서리만 내렸다고.

이 사는 成都府尹이던 섭몽석이 知建康府로 부임되어 京城으로 돌아가게 되자 옥유가 그를 전송하면서 지은 사이다. 이 사의 上片은 과거 자신이 살아온 모습의 묘사이다. 작가가 기루에서 좋은 술을 실컷 마시고 저포 놀이에 많은 돈을 써버리는 호기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즉 上片에서 과거의 회상을 통해 나타나는 작가의 심태는 “豪舉”이다. 그러나 下片에서는 이와 대응되는 심태가 나타나는데 바로 “淒涼”이다. 과거 회상으로부터 현실로 돌아온 작가는 젊었을 적 가졌던 뜨거운 호기는 이미 사라지고 憂國表情을 실현하지 못한 채 늙어버린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술잔을 앞에 두고 일어나는 감흥은 자신에 대한 한탄이며 쓸쓸함이다.

과거와 현재의 시간 대비는 豪舉와 淒涼의 심태 표현 대비와 함께 호방하면서도 침울한 작가의 심태를 잘 드러나게 한다.

위의 작품에서 본 “과거”와 “현재”의 대비 외에도 옥유의 蜀中 憂國詞에서는 또한 “꿈”과 “현실”의 대비를 통해 드러나는 심태 표현을 볼 수 있다. 옥유는 淳熙 元年(1174) 11월에 榮州로 부임되었다가 12월에 다시 成都로 돌아가 淳熙 5년(1178) 봄 成都를 떠나 臨安으로 돌아간다. 〈夜游

8) 같은 책, 39쪽.

宮)은 다시 成都로 돌아왔을 때 지은 詞이다. 詞題에서 이미 밝혀 두었듯이 岳飛가 꿈을 꾸고 난 후 그 꿈을 기록하여 벗인 師伯渾에게 보내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夜游宮—記夢寄師伯渾〉 야유궁 — 꿈을 적어 師伯渾에게 보낸다.

雪曉清笳亂起,	눈 내린 새벽 胡笛 소리 어지러이 일고
夢遊處、不知何地。	꿈속에서 노닐던 곳 어느 곳인지 모르겠네.
鐵騎無聲望似水。	鐵甲 騎兵들은 소리 없이 물 흐르듯 달렸네.
想關河,	생각해보니 변방 요새,
雁門西,	雁門關 서쪽이나
青海際。	青海湖 근처이네.
睡覺寒燈裏,	잠에서 깨어나니 추운 밤 등불 속.
漏聲斷、月斜窗紙。	물시계 소리 끊기고 달빛은 비스듬히 창호지에 비치네.
自許封侯在萬里。	스스로 만리 밖에서 제후로 봉해지리라 기대했지만.
有誰知,	그 누가 알아줄까
鬢雖殘,	귀밑머리 비록 허영게 세었지만
心未死。 ⁹⁾	마음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꿈은 岳飛의 작품에서 자주 보이는 체재로 작가의 이상 추구와 기탁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에서도 岳飛는 꿈을 빌려 자신의 이상과 갈망을 기탁하였다. 上片에서는 꿈속의 상황을 적고 있다. 꿈에서 깨어난 후 생각해보니 꿈속에서 노닐 곳은 바로 雁門關과 青海湖가 있는 西北邊方이다. 즉 작가는 꿈에서도 여전히 이민족을 몰아내고 함락된 영토를 수복하려는 웅대한 이상을 기탁하였다. 下片에서는 꿈에서 깨어 현실로 돌아온다. 추운 밤 등불이 켜져 있고 달빛은 비스듬히 창문을 비추며, 이루어놓은 업적도 없이 헛되이 세월만 흘러갔다. 호적소리 어지러이 일고 기병들이 달리는 上片과는 대조적이다. 호기 넘치는 꿈에서 깨어난 후 밀려오는 실망감은

9) 같은 책, 61쪽.

처량하고 비분한 심태를 자아낸다. 그러나 작가는 다시금 마음속 壯志가 여전히 떠올려 우렁찬 기세와 정서를 나타낸다. 꿈과 현실의 대비를 통해 작가의 심태를 표현하였다.

육유는 蜀地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이상과 현실과의 거리를 느꼈다. 南鄭을 회상하며 감정의 기복은 복잡해지고 다양한 심태로 나타났다. 정치적 실의에 빠져 분개하고 비분해하며 불만을 표출하다가도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워하고 여전히 마음 한 편에 남아있는 포부를 꺼내 보이기도 한다.

이상 육유의 蜀中 憂國詞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 꿈과 현실의 대비를 통해 호방하면서도 처량한 자신의 심태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한 특징이 있다.

IV. 景物 묘사보다 心態 묘사 중심으로 표현 - 蜀中 游覽詞

육유가 蜀地에서 맡은 관직은 대부분이 공무가 적은 閑職이었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주어질 때면 주변 지역을 유람하였다. 그는 유람했던 蜀地의 여러 산수 명승지를 詞의 체재로 사용하여 填詞하였으며, 몇몇 작품은 당시 문인들의 유람 문화 및 지역 풍습 등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육유는 蜀州에서 통관을 맡은 지 일 년도 채 못 되어, 그해 겨울 淳熙元年(1174) 榮州知州로 부임한다. 蜀州에서 榮州로 오면서 成都 근처 青城山에 들러 그곳의 풍경과 명승지를 유람하고, 다시 榮州에 도착해 약 70일간 지내며 詞 7수를 지었다. <驀山溪>는 榮州의 성 밖 동남쪽에 위치한 유람 명승지 중의 하나인 龍洞을 유람하고 적은 사이이다.

〈驀山溪—游三榮龍洞〉 맥산계 — 삼영의 용동을 유람하다.

窮山孤壘,	깊은 산 외로운 누대,
臘盡春初破.	선달이 지나가고 봄이 막 시작하네.
寂寞掩空齋,	적막함이 빈방을 엄습하나,
好一個、無聊底我.	좋은 것은 단 하나 무료한 나 자신이네.
嘯臺龍岫,	높은 바위와 동굴,
隨分有雲山,	어느 곳이나 雲山은 있으니,
臨淺瀨,	알고 빨리 흐르는 물,
蔭長松,	큰 소나무 그림자,
閑據胡牀坐.	胡牀에 앉아 한가롭게 보낸다.
三杯徑醉,	석잔 술에 곧 취하니
不覺紗巾墮.	두건이 떨어져도 알지 못한다.
畫角喚人歸,	나팔소리는 사람들 돌아오라 부르니,
落梅村、籃輿夜過.	매화가 떨어진 마을, 밤에 가마를 타고 지나가네.
城門漸近,	성문이 점점 가까워지니
幾點妓衣紅,	몇몇 점들은 기녀의 붉은 옷
官驛外,	역관 밖
酒壚前,	주점 앞에는
也有閑燈火。 ¹⁰⁾	한가로이 등불이 걸려 있네.

이 시는 上片의 시작부분에서 “깊은 산 외로운 누대”라고 유람의 장소를 언급하였고 “선달이 지나가고 봄이 막 시작하네”라며 유람하는 시간을 설명하고, 下片에서는 유람을 마치고 돌아오는 상황을 적고 있다. 즉 유람지의 경치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보이지 않는다. 이 작품이 비록 한 수의 游覽詞이지만 작가는 유람지의 산수풍경의 묘사보다 오히려 작가의 심리 묘사 즉 심태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쓸쓸해하고 무료해하던 주인공이 龍洞에 도착하자 한결 마음의 안정을 얻어 속박 없이 자유롭게 술을

10) 같은 책, 47쪽.

마시며 머리에 쓴 두건이 벗겨져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한 시간을 즐긴다. 또한 작가는 유람을 통해 참기 어려운 만큼 쓸쓸한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는데 바로 이 점이 바로 유람의 목적이며 주요 내용이 이다.

이 詞를 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육유는 또 다시 용동을 유람하고 〈齊天樂〉을 지었다.

〈齊天樂—三榮人日游龍洞作〉

제천락 — 三榮에서 정월 초 7일 龍洞을 유람하고 짓다.

客中隨處閑消悶,	객지 곳곳에서 한가히 근심을 풀다,
來尋嘯臺龍岫.	높은 바위와 동굴을 찾아 왔네.
路斂春泥,	길에 쌓인 봄 진흙,
山開翠霧,	산에 피어나는 비취색 안개,
行樂年年依舊.	즐겁게 노닐길 해마다 여전하네.
天工妙手,	하늘의 조화가 교묘하여,
放輕絲萱芽,	푸른 원추리 싹,
淡黃楊柳.	노란 버드나무 꽃이 피었네.
笑問東君,	웃으며 봄의 신에게 물으니
爲人能染鬢絲否.	귀밑머리를 물들일 수 있다 하지 않았던가.

西州催去近也,	成都로 재촉하며 떠날 날이 가까워지고
帽檐風軟,	모자 끝엔 따뜻한 바람이 불어
且看市樓沽酒.	잠시 저자거리 주점에 들러보네.
宛轉巴歌,	은근한 巴蜀의 노래
淒涼塞管,	처량한 변방의 피리
携客何妨頻奏.	객을 두고 누차 연주하니 무슨 상관있으리.
征塵暗袖,	흙먼지 묻어 소매가 검어지고
漫禁得梅花,	견딜 수 없어 매화꽃은
伴人疏瘦.	사람과 함께 조금씩 여위어가네.
幾日東歸,	언제 동쪽으로 돌아가나
畫船平放溜. ¹¹⁾	화려한 배타고 고요히 강물 따라 흘러가리.

11) 같은 책, 49쪽.

이 詞의 上片에서 작가는 다소 한가로운 마음으로 봄의 경치를 즐기는 듯하지만 결국엔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는 것을 슬퍼한다. 작가의 이러한 심태는 下片으로 이어져 한 층 더 깊어진다. 영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타향의 객이 되어 또 다시 성도로 떠나야하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슬퍼하고 결국은 동쪽 고향으로 돌아가 관직 생활을 그만 두고자 한다. 이 사에서도 유람을 한 龍洞의 묘사는 보이지 않고, 점점 침울해지는 작가의 심태 묘사가 주요 내용을 이룬다.

또 육유가 성도에서 〈月上海棠〉을 지었는데, 詞題에서 “성도성 남쪽에 蜀王의 옛 동산이 있는데, 특히 매화가 많이 피었고 모두 이백년이 넘는 古木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한 “蜀王의 옛 동산”은 바로 合江園이다. 《括地志》에서 “大江은 일명 汶江이라 하고, 서남쪽 溫江縣에서 흘러온다. 郫江은 永平江이라하며 서북쪽 新繁縣에서 흘러온다.’ 옛날 李冰이 성도에 두 강을 뚫었고 모두 배가 다닐 수 있었으며 성의 동남쪽에서 물줄기가 만나, 물가 굽어진 곳에 合江亭이 있다.”¹²⁾고 하였다. 또 〈吳船錄〉에서는 “정자(合江亭) 위에 芳華樓가 있는데 앞뒤로 매화가 많이 심어져 있었다.”¹³⁾고 또 “蜀에서 뭍로 가는 이는 모두 이곳에서 배를 탔다.”¹⁴⁾고 하였다. 合江園 또한 당시 성도의 유람지이며, 특히 봄날 매화를 감상하기 좋은 곳임을 알 수 있다.

〈月上海棠—成都城南有蜀王舊苑尤多梅皆二百餘年古木〉

월상해당 — 成都城 남쪽에 蜀王의 옛 동산이 있는데, 특히 매화가 많이 피었고 모두 이백년이 넘는 古木이다.

斜陽廢苑朱門閉, 기운 해는 황폐한 동산을 비추고 붉은 문은 닫혀있어,

12) 《括地志》云‘大江一名汶江, 西南自溫江縣來. 郫江一名永平江, 西北自新繁縣來.’ 昔李冰穿二江城中, 皆可行舟, 合於城之東南, 岸曲有合江亭.

[明]曹學佺, 劉知漸 點校, 《蜀中名勝記》, 重慶出版社, 1984, 27쪽.

13) 亭之上曰芳華樓, 前後植梅甚多.

[宋]范成大, 孔凡禮 點校, 《范成大筆記六種》, 中華書局, 2002, 187쪽.

14) 蜀人入吳者, 皆自此登舟. 같은 책, 187쪽.

弔興亡遺恨淚痕裏,	홍망을 슬피하며 눈물로 한을 달랜다.
淡淡宮梅,	그윽한 궁의 매화
也依然點酥剪水,	여전히 맑고 빛난다.
凝愁處,	수심에 잠겨,
似憶宣華舊事.	마치 宣華의 옛 일들이 다시 기억나는 듯하다.

行人別有淒涼意,	행인은 특히 처량한 마음 있으나
折幽香誰與寄千里.	그윽한 향기를 꺾어 누가 천리 밖에 부쳐줄까.
佇立江皋,	오랫동안 강가 언덕에 서 있어도
杳難逢隴頭歸騎.	막연하여 隴頭에서 말을 타고 돌아오는지 알 수 없다.
音塵遠,	소식이 아득하여,
楚天危樓獨倚. ¹⁵⁾	楚의 높은 누대에 홀로 기댄다.

당시 合江園은 뭇로 가는 배를 타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주위에 무성히 핀 매화꽃은 복잡한 부두에 생기를 더하였다. 詞題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작품의 주인공은 바로 매화이다. 그러나 육유는 合江園의 매화를 묘사하기보다, 前朝의 역사를 추모하고 조정의 홍망을 토로하여 그 정취가 짙게 묻어난다. 또한 작가는 멀리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고향을 생각한다. 매화를 시작으로 하지만 곧 작가 자신으로 돌아와 자신의 심정을 더욱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매화의 모습은 보이질 않는다.

또 육유는 성도에서 어느 봄날 摩訶池로 봄놀이를 나가 〈水龍吟〉을 짓고 “봄날 摩訶池를 유람하다”라고 詞題를 적었다. 그 下片을 보자.

惆悵年華暗換,	세월이 훌쩍 지나가는 것을 슬피하니
點銷魂、雨收雲散.	정신이 나간 듯 비는 그치고 구름은 흩어져 사라지네.
鏡奩掩月,	鏡匣은 달을 가리고,
釵梁拆鳳,	비녀에는 봉황 장식이 떨어지고
秦箏斜雁.	거문고는 기러기발만 비스듬히 서 있네.

15) [宋]陸游, 夏承燾, 吳熊和 箋注, 《放翁詞編年箋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67쪽.

身在天涯,	이 몸은 하늘 끝
亂山孤壘,	험준한 산 외로운 보루
危樓飛觀,	높은 누대에 있으니.
歎春來只有,	탄식하네, 봄이 왔으나 아직
楊花和恨,	버들개지 원망을 머금고
向東風滿. ¹⁶⁾	봄바람을 향해 가득함.

작가는 봄놀이로 들뜬 분위기 속에서 이와 동떨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외로운 성, 높은 누대에 있는 듯하고 즐거운 유람객들 사이에서 홀로 근심스런 걱정을 하고 있다. 세월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나가 버린 것이 슬프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내는 것도 괴롭다. 몸은 비록 摩訶池에 있으나 마음은 멀리 고향에 있으므로 작가에게 싱그러운 봄날의 경치는 의미를 잃어버렸고 유람의 흥겨움도 사라져 버렸다. 비록 上片에서 당시 성도의 유명한 명승지인 摩訶池에서 봄놀이하듯 즐거운 모습을 다소 묘사하였으나 그 주인공은 본인이 아니라 타인의 모습이며, 자신은 슬픔과 근심과 괴로움으로 봄놀이를 즐기지 못하는 下片의 모습이다. 이 사에서도 육유는 침울한 자신의 심태를 주로 묘사하고 있다.

쓸쓸하고 처량한 작가의 심태는 어디에서 야기되었을까? 바로 남정을 떠난 뒤 자신의 이상과 壯志를 이루지 못한 현실 속에서의 실의가 처량한 심태를 자아내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유람을 하며 좋은 경치가 눈앞에 있더라도 작가는 풍광을 즐길 심리적 여유가 없다. 가슴속에 찬 실의를 감당하기 버거울 따름이다. 단지 잠시나마 그 시름을 잊게 해줄 수는 있지만, 유람의 즐거움은 그에게서 찾아 볼 수 없다.

16) [宋]陸游, 夏承燾, 吳熊和 箋注, 《放翁詞編年箋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69쪽.

V. 복잡한 心態 표현 - 蜀中 宦游詞

육유가 夔州에 도착해서 지은 <滿江紅>은 그의 蜀中詞 중 첫 번째 작품이다.

<滿江紅—夔州催王伯禮侍御尋梅之集>

만강홍 — 夔州에서 어사를 지낸 王伯禮에게 매화를 찾는 모임을 재촉하다.

疎蕊幽香,	성긴 꽃술 그윽한 향기
禁不過、晚寒愁絕。	견딜 수 없으니 늦겨울 추위는 시름겹다.
那更是、巴東江上,	하물며 巴東 강 위로
楚山千疊。	楚山이 천 겹이네.
敲帽閒尋西漢路,	비스듬히 모자 쓰고 西漢의 길가에서 매화를 찾아
鞭鞭笑向南枝說。	채찍 늘어뜨리고 남쪽 가지를 향해 웃는다.
恐使君、歸去上巒坡,	사군께서 巒坡로 돌아가
孤風月。	風月을 저버릴까 걱정이네.

清鏡裏,	맑은 거울 속,
悲華髮。	슬픈 흰 머리카락.
山驛外,	산 역참 밖,
溪橋側。	시내 다리 가에.
淒然回首處,	쓸쓸히 머리 돌려보는 곳은
鳳凰城闕。	鳳凰城闕이네.
憔悴如今誰領略?	초췌해져 지금과 같으면 누가 알아보나
飄零已是無顏色。	꽃잎이 떨어지면 빛을 잃어 버리니.
問行廚、何日喚賓僚?	술과 음식 차고 멀리 나가 언제 벗들을 손으로 부를
	까 물어 보네.
猶堪折。17)	지금도 꽃을 꺾을 만하니.

17) 같은 책, 22쪽.

乾道 6년(1170) 10월 옥유가 夔州에 도착해 당시 夔州의 知州인 王伯禮를 만나 후일 매화를 보자고 약속을 하고난 뒤, 늦겨울 매화가 피기 시작하자 王伯禮를 재촉해 그 약속을 지킨다. 근 5개월의 여정기간을 거쳐 멀리 타향인 촉지에 들어선 옥유의 심정은 上片 시작 부분에서 바로 나타난다. 늦겨울 보기 힘든 이른 매화를 보며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 하지만, 작가의 심리 상태는 여전히 “시름겹다”. 관직을 위해 멀리 타향의 객이 된 것이 서글프고 또 언제 어느 곳으로 떠날지 모르는 자신의 신세가 서글프다. 세월은 자꾸만 흘러 흰머리는 늘어가고,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해 鳳凰城關을 떠올리는 자신이 처량하다. 갓 피어난 이른 매화도 결국 빛을 잃고 지게 될 것이고 사람도 꽃과 같은 운명이다. 결국엔 자신의 처지를 접어두고 벼들을 불러 꽃을 즐기고자 하지만, 여전히 작가의 시름이 전해진다.

나그네의 근심과 처량함, 고향을 그리는 심정, 포부와 壯志를 실현하지 못한 괴로움, 정치적 실의에서 오는 상실감, 흘러가는 세월의 원망, 늙어가는 자신의 한탄 등, 이러한 모든 감정은 옥유가 객지에서 환유생활을 하며 “無定(都似學人無定)”과 “無成(一事無成兩鬢霜)”에서 오는 복잡한 심태의 표현들이다. 타향의 객이 되어 떠도는 遊子是 계속된 지역의 이동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기탁할 정해진 곳이 없다. 또 현실과 이상의 모순 속에서 평생의 포부를 실현하지 못한 志士는 이루어 놓은 것 없이 세월만 헛되이 보내고 있다. 옥유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만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고, 복잡한 심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옥유가 榮州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水龍吟>(樽前花底尋春處)과 <好事近>(羈雁未成歸)을 지었는데,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옥유의 심태 또한 無定の 쓸쓸함과 외로움이다. <好事近> 한 수를 보자.

羈雁未成歸,	외로운 기러기 돌아갈 수 없으니
腸斷寶箏零落,	창자가 끊어진 듯 寶箏도 쓸모없게 되었네.
那更凍醪無力,	어찌 차가운 술은 힘이 없는지

似故人情薄。 옛 벗들의 정이 없어지는 듯하네.

瘴雲蠻雨暗孤城, 瘴氣 가득한 황량한 땅에 비가 내린 외로운 성
 身在楚山角. 몸은 楚나라 땅 외진 곳에 있네.
 煩問劍南消息, 자주 劍南의 소식을 물으니,
 怕還成疏索.¹⁸⁾ 도리어 쓸쓸할까 걱정이네.

황량한 외진 지방에 홀로 도착한 작가는 고독하고 외로움에 자연히 벗들을 생각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 자신은 마치 “羈雁”과 같아서 자유롭게 벗들에게 날아갈 수도 없고, 술로도 그 시름을 달랠 수 없으니 쓸쓸함이 더해 간다. 영주에 머물면서 이러한 외로움은 결국 고향을 그리워하는 슬픔을 자아낸다.

유육가 成都에 도착한 그해 6월, 오랜 친분이 있던 范成大가 敷文閣直學士로 城都知府에 부임하여 가을 즈음 〈雙頭蓮〉을 적어 范成大에게 보내었다.

〈雙頭蓮—呈范至能待制〉 쌍두련 — 范成大 待制에게 보낸다.

華鬢星星, 백발의 귀밑머리가 듬성듬성하고
 驚壯志成虛, 壯志는 이루어 놓은 것 없으며
 此身如寄, 이네 몸 나그네 신세에 놀란다.
 蕭條病驥, 쓸쓸한 병든 말.
 向暗裏消盡, 어느새 모두 사라졌네,
 當年豪氣, 그 옛날 호기.
 夢斷故國山川, 꿈에서도 고국산천갈 수 없고
 隔重重煙水, 겹겹의 안개 자욱한 강물이 가로막고 있네.
 身萬里, 몸은 萬里 밖에 있고
 舊社凋零, 옛 벗들의 소식이 끊기었으니
 靑門俊遊誰記? 靑門에서 헌걸차게 유람하던 일 누가 기억할까.

18) 같은 책, 48쪽.

盡道錦里繁華,	다들 錦城이 번화하다지만
歎官閒晝永,	한가한 관직 긴 낮을 탄식하며
柴荆添睡.	사립문 닫고 잠이나 자네.
淸愁自醉,	맑은 시름에 스스로 취하니,
念此際付與,	생각하니, 이 때
何人心事,	누구에게 속마음을 보여 줄까.
縱有楚舵吳檣,	설령 楚와 吳로 가는 배가 있다 할지라도
知何時東逝?	언제 동쪽으로 갈 지 알까?
空悵望,	공연히 탄식하며
鱸美菰香,	맛있는 농어회와 향긋한 菰菜
秋風又起. ¹⁹⁾	가을바람이 또 이는 것을 보네.

蜀地에서 지내다 보니 육유는 어느덧 51세가 되었다. 몸은 점점 늙어 흰 머리카락은 늘어나는데, 가슴속 壯志는 이룬 바가 없으니 마치 자신이 쓸모없는 “병든 말”과 같다고 느낀다. 게다가 뜻을 같이 했던 벗들조차 타향을 떠도는 자신을 잊어버렸으니, 그의 정치적 실의로 인한 씩쓸함과 상실감을 짐작할 만하다. 그래도 육유는 현재 이러한 간절한 심정을 벗인 范成大가 알아주길 바라며 이사를 적어 보낸 것이다. 즉 이 사는 관직에 뜻을 잃은 복잡한 감개를 나타내었고, 또 마지막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심정에서도 육유는 隱逸을 바라진 않았다. 隱逸은 그가 東歸한 후 고향 산음에서 전사한 작품의 주요 내용이다.²⁰⁾ 육유는 동귀전 축지에서 사실상 자신의 포부가 실현 불가능함을 알고 포기 아닌 포기를 하게 된다. 즉 壯志의 현실 실현 불가능을 인정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 절대 놓을 수 없는 끈인 것이다. 겉으로는 壯志도 관직도 더 이상 마음에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東歸하여 고향에 지내기 시작하면서

19) 같은 책, 57쪽.

20) 육유의 蜀中詞 가운데 은거 생활을 꿈꾸는 작품은 남정에서 돌아와 성도에서 지은 〈好事近〉(歲晚喜東歸) 한 수가 있음.

비로소 이상을 실현할 정치적 뜻을 체념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육유는 진정으로 隱逸의 삶을 바라고 실천하고 즐길 수 있었다. 즉 육유에게 蜀地에서의 東歸는 사실상 관직 생활의 끝과 은거 생활의 시작을 의미하며, 복잡한 심정을 내려놓고 현실과 타협하여 안정된 심태로 접어들게 됨을 의미한다.

VI. 끝맺으며

본고는 육유의 蜀中詞 중에서 주된 내용이자 가장 많은 작품 수를 차지하는 憂國詞와 游覽詞, 宦游詞를 대상으로 대비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작품의 주요 체재보다 자신의 심태 묘사에 중점을 두거나, 한 작품에 복잡한 심태를 표현하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결국 蜀中詞에서 이러한 특징들로 표현된 육유의 심태는 근심, 슬픔, 외로움, 괴로움, 그리움 등 침울한 감정들의 표현이 주를 이룬다. 즉, 육유는 蜀地에서 심리적 침체를 보낸 것이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침울한 심태의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蜀地에서 자신의 憂國衷情과 壯志를 실현할 수 없었던 슬픔과 분노의 반영이다. 육유가 어떤 지역에서 어떠한 詞를 填詞하더라도 그의 내면 깊이 존재하는 報國의 恨이 자신도 모르게 표현되었으며 그 결과 蜀中詞 곳곳에서 침울한 심태를 표현하였다. 이렇듯 뚜렷이 나타나는 다수의 심태 표현이 바로 육유 蜀中詞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육유가 그의 詩와 달리 詞에서 직접적으로 愛國之情을 노래한 작품이 많진 않지만, 이러한 육유의 심태는 蜀地에서 그치지 않고 東歸한 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어져, 平淡한 풍격을 추구한 후기 작품에서도 여전히 나타나 陸游詞 전체에 내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육유의 蜀中 생활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시가 창작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남송을 대표하는 애국 시인이 될 수 있는 밑

거름이 되었으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상 육유의 蜀中詞에 나타나는 心態 표현의 특징을 분석하고, 나아가 蜀中詞의 특징과 蜀中 생활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육유와 그의 詞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References >

- Lu You. *Chronology note of Fangweng Ci*. Shanghai: Shanghai chinese classics publishing house, 1981.
- Lu You. *Laoxuean notes*. Beijing: Zhonghua publishing house, 1997.
- Lu You. *The new release Comments of Luyou Ci*. Beijing: Zhonghua publishing house, 2001.
- Lu You. *Annotate on Jiannan Poems*. Shanghai: Shanghai chinese classics publishing house, 2005.
- Fan Chengda. *The Six kinds of Fan Chengda notes*. Beijing: Zhonghua publishing house, 2002.
- Chen Yuanjing. *Suishiguangji*. Shanghai: The commercial press, 1939.
- Cao Xuejiao. *Shuzhongmingshengji*. Chongqing: Chongqing publishing house, 1984.
- Zhao Yi. *Oubeishihua*. Beijing: People's Literature Publishing House, 1963.
- Yu Beishan. *Lu You's chronology*. Shanghai: Shanghai chinese classics publishing house, 2006.
- Wang Houjie. *Study on flower of Luyou's poems*. National Sun Yat-sen University Master thesis, 2006.
- Wu Qifu. *Landscape changes in the life of Luyou's official travel*. Sichua Norm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05.

Ma Yin. *The research of Luyou in Sichuan*. Chongqing Norm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11.

Zhang Yiwen. *Begin talking about Gandao 8 years*. *Wenjiaoziliao*, 9(2012): 118-120.

Lee Chisoo. *The Contrast Rhetoric of Luyou's Ci*.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57(2011): 27-52.

<Abstract>

The experiences which Luyou has been through in BaShu area has changed his life. He had opportunities to realize his ambition at the frontier. Also, he wrote 42 Ci while enjoying his travel and going sightseeing in Shu area. Luyou's feelings when he was in Shu area expressed by worry, sadness, loneliness, pain, longing. That is, Luyou suffered a period of psychological depression. Why do this kind of slumps represent? Those feelings were caused by the result of his failure with realizing his ambitious and his worry about country. All his works are based on patriotism, so his Ci written in Shu area represented his feelings well. Thus,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n his Ci. We can infer with underlying meaning of his entire Ci based on his gloomy feelings from his failure. Therefore, the life in Luyou is significant period for him because it brings him a lot of changes about his writing styles and provides a foundation for representative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as well. In conclusion, we could understand Luyou and his Ci more deeply from analyzing characteristics about emotional expressions in his Ci written in Shu area and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about Shu area.

Key Words : 陸游詞(Luyou Ci), 蜀中詞(Ci written in Shu area),
愛國詞人(Patriotic lyricist)

